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 디자인 연구

윤 을 요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학과 조교수

요 약

패션은 생활양식을 통해 표현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문화양식이다. 오늘날 안경은 신체의 결함과 불편을 보완하기 위한 의료 기구에서 웰빙을 위한 생활필수품으로, 더 나아가 라이프 스타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패션소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안경이 최초 유입되었다고 보는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서, 한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날로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통을 살려 한류 브랜드의 독창적인 안경디자인 개발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출발하였다. 따라서 안경과 안경집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의 디자인적인 특징을 연구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안경 및 지수, 전통공예와 관련된 국내, 외 전문서적을 토대로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정기간행물과 박물관 및 온라인의 자료를 기초로 연구하였다. 실제로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은 많은 유물을 통해 그 실증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은 유교적인 바탕위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점점 더 다양화, 기능화, 장식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안경 디자인의 특징은 신체적 한계의 보완 및 보호에 목적을 둔 의료중심의 디자인이며, 안정성과 착용을 위하여 다양한 착장방식을 탐구한 디자인이고, 소재의 물성과 외형에 주목한 디자인이며, 의료 도구에서 장식 도구로 활용도를 극대화시킨 디자인이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안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편이성과 안정성, 장식성을 토대로 변천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안경집 디자인은 보호 기능의 충실성, 안경 형태의 우선성, 제작의 용이성과 창작물의 다양성 추구, 소재의 물성을 활용한 심미성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안경, 안경집, 생활양식

I. 서론

안경은 특정 목적을 위한 의료 기구에서 자기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패션소품으로 기능성과 심미성에서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

과거 안경부분의 수출을 주도하던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의 출현으로 수출에 난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 명품들의 인기에 밀려 수출입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으로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개발과 브랜드의 정체성 확립은 무역 역조현상의 회복과 안경 산업의 신장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현 상황을 기반으로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감각을 살리고, 글로벌 마켓과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안경디자인의 개발이 절실하며, 이에 관한 기초연구는 안경과 안경집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성장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경과 안경집 디자인의 특징적인 요소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향후 디자인 기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은 이론적인 배경으로 안경에 대한 유래와 개괄적인 안경의 변천과정 및 안경의 구조를 통해 안경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코자 한다. 또한 본론에 있어서는 안경과 안경집의 변천을 이끈 디자인의 특징적인 요소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안경과 안경집에 관한 국내의 전문서적과 안경과 관련된 학술자료 및 박물관의 전문자료, 안경관련 전문보도 자료 및 사진자료와 그 외에 고 유물과 관련된 온. 오프라인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최초로 안경이 유입되었다고 추정되는 임난 전후 시대의 김성일 안경을 필두로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을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 정하며, 광학기술 부문에 해당되는 렌즈의 내용은 제외하고 시각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안경과 안경집의 외형적, 재질적인 부분을 안경과 안경집 디자인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한류에 대한 관심과 인기에 편승한 문화산업의 한 부문으로 패션의 영향력은 문화와 생활, 미와 경제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언급이 불필요하다. 패션의 한 축으로 안경과 안경집 디자인의 성장이 패션소품과 안경 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안경의 출현

현재까지 안경 발명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없으며, 사적인 자료와 유물을 통해 대체적인 내용과 기원을 유추할 뿐이다. 실제로 희극 시인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BC.445~BC.385경)는 「구름」이라는 희곡에서 양피지에 구멍을 내기 위한 용도나 밀랍 판에 쓴 것을 지우기 위한 용도로 태양열을 모으는 집열 렌즈가 사용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플리니우스는 의사들이 상처를 소작하는데도 이 집열 렌즈를 사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¹⁾

또한, 1세기경에는 네로황제가 에메랄드를 눈에 대고 검투사의 경기를 관람했으며, 이후 9세기 피르나스(Abbas Ibn Firnas, 810~887)가 모래로부터 수정유리(Quartz glass)를 제작해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유리의 한쪽 면은 평편하고, 다른 쪽은 둥글게 하여 <그림 1>



<그림 1> 독서 돌 1000년경
(출처: www. teagleoptometry.com)



<그림 2> 리벳 안경 얇은 뼈로 제작된 초기안경
(출처: en.wikipedia.org)



<그림 3> 위고 대주교의 초상화(1352),
(출처: 『안경의 문화사』, 2003, p.26)

독서 돌(reading stone)²⁾을 제작하였다. 그 외에도 12세기에 중국 송나라에서는 송사 때 얼굴표정을 감추기 위해 연수정(smoky quartz)으로 만든 색안경을 끼었다고 전해지며, 13세기 마르코 폴로는 1271년부터 1295년까지 중국 대륙에 머물면서 동방견문록에 원나라의 관습과 생활상을 담았는데 이 책에서 “원나라의 늙은 신하들은 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볼록 렌즈 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 당시 안경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몽고의 5대 황제 쿠빌라이의 대제국 형성에 의한 서구와의 교역확대³⁾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정황적 자료를 통해 현재의 안경이 발명된 것은 대략 1280년경⁴⁾이며, 본격적으로 시력을 돕는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⁵⁾

2. 안경디자인의 변천과정

안경디자인의 변천 과정은 안경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안경이 본격적인 시력 보정의 도구로서 이용되기 시작한 13세기 중엽 이후이며, 안경디자인은 코 위에서의 균형성과 유연성, 활동성, 심미성을 기초로 변화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리세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한계로 초기의 안경은 수정이 사용되었는데, 개괄적인 안경 발달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먼저, 13세기에 들어서는 베니스에서 유리를 이

용한 안경렌즈가 제작되었으며, 14세기에는 <그림 2>처럼 리벳안경이 착용되었다.

14세기 초기의 안경디자인은 1352년에 이탈리아의 화가 토모소 다 모데나(Tomaso da Modena)가 그린 위고(Hugo) 대주교의 초상화 <그림 3>과 같은 ‘리벳안경’으로 이 안경은 두 개의 유리알을 연결하는 안경테가 압정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였다. 실제로, 코 위에 얹거나 손으로 잡고 사용한 리벳안경은 글자를 가까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15세기에는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안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15세기 말에는 수요를 고려한 대량생산이 시작되었으며, 가격도 파격적으로 저렴해지고 염가의 안경이 <그림 4>처럼 행상인들의 손을 통해 널리 판매되었다⁷⁾.

16세기에는 <그림 5>처럼 가죽으로 제작된 안경이 많이 보급 되었고, 외알 안경과 실다리 안경이 출현하였으며, 1596년 엘 그레코(El Greco)가 그린 페르난도 니뇨 데 게바라(Fernando Niño de Guevara)추기경의 초상화 <그림 6>에서 보이는 것처럼 끈을 귀에 거는 실다리 코안경 <그림 7>도 착용되었다.

또한, 16세기에는 근시용 오목렌즈가 출현해 보정용으로 활용되었고, 당시에 베니스는 렌즈의 성능이 좋다고 알려졌으며, 안경테는 독일이 우수하다고 여겨졌다.⁸⁾



<그림 4> 행상인(Le colporteur), 15-16세기
(출처: www.genealogie.com)



<그림 5> 가족테 안경, 15세기 말-16세기
(출처: bjektkatalog.gnm.de)



<그림 6> 페르난도 니노 데 게바라 추기경, 16세기
(출처: en.wikipedia.org)



<그림 7> 실다리 코다리 안경, 16세기
(출처: spydersden.wordpress.com)



<그림 8> 초기 철사안경
(출처: www.vintageiwear.com)



<그림 9> 영국시민혁명 당시 안경,
(출처: it.images.search.yahoo.com)



<그림 10> 안경 행상, 17세기
(출처: www.antiquespectacles.com)

17세기에는 <그림 8><그림 9>처럼 금속소재로 만든 안경이 출시되었으며, 안경에 관한 커다란 발전은 없었으나, 장인들의 기술로 프레임과 렌즈가 현저히 정교해졌다. 고급안경과 대량소비용 염가 안경이 동시에 판매되었고, 품질 유무에 관계없이 <그림 10>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타일에 따른 계급차별이 생겨났으며, 금, 은, 놋쇠 등으로 만든 금속테가 뿔테와 함께 사용되었다.⁹⁾

18세기에는 가위안경 <그림 11>과 철다리 안경 <그림 12>, 꺾기다리 안경 <그림 13>이 제작되었다.¹⁰⁾ 18세기 초기 안경의 착용법은 거의 이전과 동일하였으나 안경을 안전성과 고정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다.

18세기 초기 다리 달린 안경은 원형렌즈의 강철 제품으로 머리에 눌러서 고정시키는 형태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편의와 안정성을 도모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리 안경이 고안되었다. 또한, 18세

기 말에는 편 안경 혹은 단안경(monocle)이라고 불리는 <그림 14> 단일 렌즈의 안경이 널리 유행하였으며, 독일과 영국의 상류 사회 여성과 신사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영국에서는 프로스펙트(prospect) 안경이라고 불리고, 프랑스에서는 로르네트(lorgnette)라고 불린 소형 망원경 <그림 15>도 인기였다.¹¹⁾

19세기에는 무테안경 <그림 16>과 플라스틱 안경테가 개발되었고 이제 안경은 실용적인 부분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 멋을 부리는 남성들의 영향이 사라져버리자 오페라 안경 로르네트를 사용하는 남성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교계의 여성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경을 쓰지는 않았으며, 남녀 공히 코안경 <그림 17>을 착용하게 되었다. 19세기 로르네트의 형태는 렌즈 2개로 구성된 디자인에 손잡이가 달린 스타일 <그림 18><그림 19>로 이전 소형 망원경 스타일에서 휴대가 용이하도록 접이식 형태를 띠었으며, 편리하고 간소한 스타일¹²⁾로 바뀌었다.



<그림 11> 가위안경, 18세기 (출처: www.eyeglasseswarehouse.com)



<그림 12> 금속 안경, 18세기 (출처: www.maddmoniblogs.wordpress.com)



<그림 13> 1775년경 강철안경 (출처: www.antiquespectacles.com)



<그림 14> 단안경, 18세기 (출처: spidersden.wordpress.com)



<그림 15> 로르네트, 18세기 (출처: www.pinterest.com)



<그림 16> 무테안경, 19세기 (출처: www.ebay.com)



<그림 17> 대모안경, 1850년경 (출처: ew.eyeaniques.com)



<그림 18> 로르네트, 19세기 (출처: www.ebay.com)



<그림 19> 모조 대모손잡이 로르네트, 1800년대 (출처: www.rubylane.com)



<그림 20> 코르크와 금박 코안경, 1880년대 (출처: www.eyeaniques.com)



<그림 21> 1890년대 금박 코안경 (출처: ew.eyeaniques.com)



<그림 22> 19세기 팔각안경 (출처: www.ebay.com)



<그림 23> 안경 쓴 체홉 (Anton Pavlovich Chekhov) (출처: en.wikipedia.org)



<그림 24> 에보나이트 합성수지 셀룰로이즈 기역자 꺾기다리안경, 1910년경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63.)

아울러 예전보다 정교해지고 다양해진 안경 <그림 20><그림 21>이 고안되었고, 각진 형태의 팔각안경 <그림 22>도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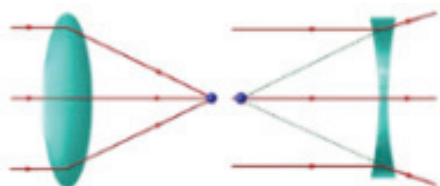
20세기에 들어서는 코 받침이 달린 합성수지 안경 <그림 24>과 콘택트렌즈¹³⁾가 출시되었다.¹⁴⁾

3. 안경의 구조와 특징

안경의 구조는 크게 렌즈와 안경테로 나눌 수 있다. 렌즈는 두 개의 구면으로 이루어진 매체로서 광선의 굴절상태에 따라 크게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로 나누고<그림 25>, 눈앞에 렌즈를 놓아 초점을 망막으로 이동시켜 시력을 교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또한, 렌즈는 굴절이상을 보완하거나,

강한 광선을 약하게 하거나, 또는 눈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면과 뒷면이 모두 볼록하거나 모두 오목한 ‘등축 렌즈’, 한쪽 면은 평면이고 다른 쪽 면이 볼록하거나 오목한 ‘편평 렌즈’, 원주를 축의 방향으로 난시 교정을 위한 ‘원주렌즈’, 기본만곡을 1.25 D¹⁵⁾로 하여 등축이나 편평 렌즈에 비해 비점수차¹⁶⁾가 제거된 ‘전방 렌즈’, 기본만곡을 6.0 D로 하여 비점수차를 보정한 ‘메니스커스 렌즈’, 비점수차를 더 한층 제거한 ‘점상 렌즈’, 타원형의 특유한 커브를 가진 ‘서닝곡선 렌즈’, 곡면이 있는 한쪽 방향에 또 한 개의 곡면을 더한 ‘토릭 렌즈’, 백내장의 수술 후, 수정체를 적출에 따른 강한 원



<그림 25>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출처: www.doopedia.co.kr)



<그림 26> 안경테의 구조
① 림(rim), ② 브릿지(bridge), ③ 템플(temple),
④ 팁(tip), ⑤ 앤드피스(end piece), ⑥ 노즈 패드(nose pad)

시상태를 교정하는 ‘백내장 렌즈’, 렌즈의 유효한 중앙부에만 도수를 넣고 주변부는 얇게 한 ‘렌티큘러 렌즈’, 한 개의 렌즈로 원·근 양용으로 쓸 수 있도록 2개의 초점을 갖는 ‘이중초점 렌즈’ 등이 있으며, 보호안경 렌즈로는 금속산화물유리렌즈, 유기유리렌즈, 금속박막렌즈, 플라스틱렌즈가 있다.¹⁷⁾

안경테의 구조는 크게 전면부(frame)와 다리부분(temple)로 구분된다. 전면부는 림(rim)과 브리지(bridge), 노즈 패드(nose pad)로 나뉘며, 구체적인 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그림 26>.

첫째, 림(rim)은 안경 렌즈를 감싸고 있는 전면부를 의미하며, 렌즈를 고정시켜 주며 안경의 중심부로서 형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하고, 동공 거리의 조정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브리지(bridge)는 두 개의 림을 연결해 주면서 안경의 중심이 되어 안경의 균형을 교정하며 코받침 패드의 압박감을 최소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템플(temple)은 안경을 귀에 걸쳐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안경의 무게를 분산시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넷째, 팁(tip)은 머리와 귀의 압박감을 감소시키고, 접촉 부위를 부드럽게 보호하여 착용감을 보완하고,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안경이 안정적으로 위치하는 역할을 돕는다. 다섯째, 앤드피스(end piece)는 안경의 전면부와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로서 좌우 다리의 벌림 각을 조정하여 얼굴에 맞추어 착용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노즈 패드(nose pad)는 착용자의 코에 닿는 부위로서 안경의 무게분산을 통해 착용 시 안경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안경을 안착시키는 기능이 있다.¹⁸⁾

III.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

1. 조선시대 안경의 유입과 제작의 근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문헌과 유물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안경의 기원은 대략 임진왜란(1592-1598)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13세기 말엽 베니스에서 최초로 대못안경(riveted spectacles)이 제작되었다는 기록에 근거할 때 이후, 중국을 통해 조금씩 전래되다가 1600년 초 경주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안경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⁹⁾

실제로 우리나라에 안경이 유입된 시기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과거 안경을 칭하는 용어로 애체²⁰⁾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청장관전서’, ‘지봉유설’, ‘정조실록’에 나타난 안경 <그림 27>에 대한 묘사를 근거²¹⁾²²⁾²³⁾로 대략적인 안경의 유입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현존하는 안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학봉 김성일(1538-1593)의 안경이다. 16세기 김성일의 안경



<그림 27> 정조 안경으로 추정되는 옥안경, 18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48)



<그림 28> 김성일의 안경 16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24)

<그림 28>은 반으로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접이식 실다리 대모안경으로 안경테는 대모(거북의 등껍질)로 만들어졌으며 안경집은 피나무로 제작되었다. 겉면은 옷칠(강도와 보관에 용이)에 못쇠로 된 배꼽장식을 하고, 속은 안경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었는데, 이러한 제작 방식은 우리나라 공예품의 처리법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²⁴⁾

과거 안경 렌즈는 수정과 유리로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석(수정)외에 유리를 직접 제조 생산했으리라 추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981년 월성군 성부산 기슭에서 발견된 신라 때 용광로 자리는 국내 최초 유리 제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며²⁵⁾, 1985년 1월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유리를 녹인 그릇, 제작 도구 및 규석 등이 발견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유리를 직접 생산했다는 학설이 입증되고 있다.²⁶⁾

아울러 이규경의 ‘오주서중박물고변’에 자수정 곧 유리구슬을 이용한 가수정 제법을 설명하면서 안경을 진수정과 가수정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언급²⁷⁾하고 있음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안경이 제작되었음을 입증한다.

실제로 조선 중기에는 경주 남산의 수정이 유명했으며, 동경의 원리를 이용한 확대경이 만들어졌다. 경주의 남석 안경은 유리 및 수정에 관한 기술이 남달랐던 경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안경제작에 관한 실재를 보여주는 사

례라고 하겠다.²⁸⁾

2. 조선시대 안경

1) 조선시대 안경 디자인의 특징

조선시대 안경 디자인의 특징은 첫째, 신체적 한계의 보완 및 보호에 목적을 둔 의료 중심의 디자인이며, 둘째, 안정성과 착용성을 위하여 다른 신체 부위와의 관계성을 고려해 다양한 착장방식을 탐구한 디자인이고, 셋째, 안경의 용도를 기초로 소재의 물성과 외형에 주목한 디자인이며, 넷째, 의료 도구에서 장식 도구로 활용도를 확장시킨 디자인으로 장식과 더불어 신분 표현의 상징적 역할이 내재되어있는 디자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안경 디자인이 신체적 한계의 보완 및 보호에 주목한 의료목적에 우선한 대표적인 예로는 시력이 약해져 안경에 의지해야 했던 정조의 사례(“몇 년 전부터 점점 눈이 어두워지더니 올봄 이후로는 더욱 심하여 글자의 모양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 정사의 의미에 대해 낙점을 하는 것도 눈을 매우 피로하게 하는 일인데, 안경을 끼고 조정에 나가면 보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니, 6월에 있을 몸소 하는 정사도 시행하기가 어렵겠다.”)를 들 수 있다.

둘째, 안경은 안정성과 착용성을 위해 다른 신체 부위와의 관계성을 기초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과거 안경은 눈이라는 특정화된 부위의 디자인을 위해 다른 인체의 기관에 의지해야 했다. 오늘날 렌즈와 같은 발상을 초기 디자인에서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눈이라는 기관이 인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극도로 접촉에 민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경의 안정성과 지속화된 착용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코나 귀, 또는 머리와 같은 신체 부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관한 예시는 귀에 실고리를 걸어 사용했던 실다리 안경과

<표 1> 조선시대 안경

항 목	안경의 특징
대모 안경	거북의 등껍질을 활용한 안경으로 색채와 재질감이 돋보이는 안경
실다리 안경	우각, 귀갑, 나무, 금속 등의 안경테에 끈이나 실 고리로 고정된 안경
코받침 안경	안경의 브리지 부분에 받침대로 지지대를 세워 고정성을 높인 안경
썬다리 안경	안경 다리부분에 꺾임을 주어 휴대와 착용에 편이를 도모한 안경
무테 안경	안경테가 없는 안경, 렌즈에 구멍을 내어 실고리로 고정해 사용

안경의 지지와 균형을 목적으로 브리지 위에 부착한 고정대, 고정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썬다리 안경의 안경다리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착용감을 높이기 위한 인체 부위와의 관계성 및 편리성에 대한 요구로 다양한 안경 디자인이 출현하게 되었다.

셋째, 안경은 시력보강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렌즈를 고정해야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다양한 소재의 물성과 외형에 주목한 디자인이다. 그러므로 안경의 소재는 렌즈를 잡아 줄 수 있도록 주로 힘이 있고, 딱딱한 소재를 선택하였다. 반면 무른 소재일 경우는 강도를 보완할 수 있는 질긴 것을 사용했으며, 이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안경의 소재부분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안경 디자인은 의료 도구에서 장식 도구로 활용도를 확장시킨 디자인으로 장식과 더불어 신분 표현의 상징적 역할이 내재되어있는 디자인이다. 실제로 안경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귀하고 값 비싼 소재들의 활용으로 부와 신분 표시의 코드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과거와는 다른 안경 위상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 더불어 안경 브리지에 고유한 문양을 새김으로써 지역적인 특징과 미의식을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안경 디자인의 발전은 안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외부에 노출 빈도가 잦아지면서 편이성과 안정성에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이로써 기능적인 발전과 성장이 있었다. 또한 인식의 전환과 심미적인 요구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

으로 변화, 변천하였다. 안경 변천에 관한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안경 변화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역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안경 디자인은 외형적인 면에서 안경의 전면부(frame)를 평면적인 것과 입체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리의 유무를 통해 세분할 수 있다. 또한 재질적인 면에서는 렌즈를 보호, 유지하고 제작 목적에 합당한 다양한 소재별로 안경 디자인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안경 전면부의 평면적인 형태로는 외알 안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안경이 이에 속하며, 입체적인 형태로는 오페라 안경 같은 로르네트가 이에 속한다.

조선시대에 착용된 안경은 크게 대못안경과, 실다리안경, 썬다리안경, 무테안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못안경은 두 개의 외알 안경에 대못(리벳)을 고정한 형태의 안경이다. 실다리 안경은 실 모양의 안경다리를 가진 안경으로 안경 귀에 구멍을 내고 실이나 리본을 달아 귀에 걸도록 제작된 안경이다. 썬다리안경은 안경다리에 꺾임을 주어 굴곡진 형태로 조절이 가능한 안경이며, 무테안경은 안경테가 없는 안경이다.

과거, 안경 착용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잠시 꺼내서 작은 글자를 보는 데만 사용하였으므로 굳이 얼굴에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경다리는 없고 끈을 꿰어 귀에 고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림 29> 600년 전의 대못안경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9)



<그림 30> 실다리 안경, 18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51)



<그림 31> 접이식 우각테 안경, 18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58)

따라서 처음에는 장식적인 구름이나 불로초문양의 코다리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안경다리는 만들지 않았다. 이후, 장시간 착용을 위해 끈을 매어 사용하였으나 매듭의 방식은 머리 뒤나 망건 등의 모자에 묶어 착용하였다가 차츰 안경다리를 만들어 썼는데 모두 중간을 접었다 폄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²⁹⁾

또한 안경 착용 초기에는 커다란 대못(rivet)을 두 개의 외알 안경 사이에 고정하여 양 옆으로 펼쳐서 착용하는 형태를 띠다가 이후, 실다리 안경으로 착용되었고, 다시 코받침이라는 보조 장치로 안정화를 꾀하였으며, 여기에 고정화된 다리를 부착시켜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안경디자인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1700년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전면부(프레임)가 있는 안경이 사용되었으며, 무테안경은 180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었다. 대체로 나무 실다리 안경은 1700년대 초반에 제작되었고, 우각 실다리 안경은 1700년대 중반에 제작되었으며, 대모 꺾기다리 안경은 1800년대 중반에 제작되었다.³⁰⁾

먼저, 대못안경 <그림 29>는 단안경 형태의 안경 두 개를 커다란 리벳으로 고정하고 이를 코걸이 용도로 사용하고 옆으로 비껴 접을 수 있게 만들었다.

둘째, 실다리 안경 <그림 30>은 우각테, 귀갑테, 나무테, 금속테, 무테 등 다양한 소재의 안경테를 고정하는 도구로 끈이나 실을 고리형으로 만들어 착용하였다.

셋째, 코받침이 있는 <그림 31> 안경은 브리지

부분에 받침대를 세워 안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였으며, 후대가 용이한 접이식으로 디자인되었다.

넷째, 꺾기다리 안경은 1752년 영국의 제임스 야스코프(James Ayscough)에 의해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안경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사용되었다. 꺾기다리 안경 <그림 32>는 휴대뿐만 아니라 착용도 간편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리에 꺾임과 다리끝부분에 부착된 원형판이 착용에 안정감을 도모하기 때문으로 반지형, 만(卍)자문형, 칠보문 등의 문양을 새겨 사용하였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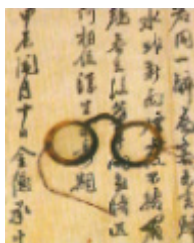


<그림 32> 우각테 경주 남석안경, 19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42)

다섯째, 무테안경 <그림 33>은 지위와 부의 상징물처럼 인식되기도 했지만 잘 깨지는 결점 때문에 유행이 오래 가지는 않았으며, 1840년 오스트리아 비인의 안경상 발트슈타인(Waldstein)이 처음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또한, 김덕승(1595-1658)의 편지와 함께 <그림 34>에서처럼 우각테 실다리 안경도 전해지고 있으며³³⁾, 아울러 황주석의 신제전서에 기록된 ‘동경수정안경명’을 근거로 임진왜란 직후에 국내에서도 안경을 제작



<그림 33> 무테안경, 19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62)



<그림 34> 우각테 실다리 안경, 17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51)



<그림 35> 경주 남석(수정) 안경,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55)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30년경 경주부 윤민기는 경주에서 제작된 남석 안경 <그림 35>을 착용했다고 전하여지며, 안경은 유리로 제작되었으나, 초기의 것은 수정으로 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³⁴⁾

2) 조선시대 안경의 소재

조선시대 안경의 소재는 대모테(거북등껍질), 우각테(소뿔), 나무테, 금속테 등이 있으며, 점차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으로 바뀌었다.

첫째, 대모(거북이 등껍질)안경은 색상이 매우 좋고 가벼우며 견고하여 <그림 36>과 같이 안경테를 만드는데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다.

둘째, 우각은 속이 차지 않고 색깔이 연갈색이며 고르게 퍼진 암소 뿔을 사용하며, 안경테 <그림 37>의 소재로 많이 활용했다.³⁵⁾

셋째, 나무테는 재질이 단단하고 습기에 강한 대추나무를 사용하였으며, 나무에 옷칠하여 <그림

38><그림 39>와 같이 제작하였다.

넷째, 금속테는 <그림 40> 금, 은, 동 기타 금속 재료를 가공하여 사용했다. 특히 순금은 무른 관계로 은, 구리, 니켈과 아연 등 다른 금속과 혼합하여 경도와 강도를 높인 합금을 사용하거나 도금이나 피복의 방식을 활용해 제작하였다. ³⁶⁾

3. 조선시대 안경집

1) 조선시대 안경집 디자인의 특징

안경집은 안경을 보관하거나 휴대하기 위한 용구이다. 옛 사람들은 안경 착용을 부끄럽게 여겨 허리춤에 매달기보다는 도포 자락에 넣고 다녔으므로 초창기 안경집에는 매다는 끈이 없다. 그러나 점차 안경 착용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면서 허리춤에 매다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밋밋하던 안경집도 화려하게 꾸며지기 시작했다.³⁷⁾

초기에는 보호와 휴대 기능을 위주로 하여 단



<그림 36> 대모안경테와 거북이 등껍질, 19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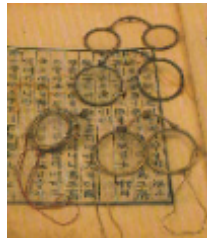
<그림 37> 우각테 금속코 실다리안경, 18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58)



<그림 38> 나무 실다리 안경, 18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83)



<그림 39> 나무 실다리 안경, 18세기 (출처: 한빛안경박물관)



<그림 40> 금속테 실다리안경, 18세기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51)



<그림 41> 나무 위에 종이로 배접한 안경집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151)



<그림 42> 갑 형태의 안경집 (출처: 서울대의학박물관)



<그림 43> 원형갑 어피안경집 (출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그림 44> 실다리 안경과 안경집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63,)



<그림 45> 대모뿔기다리 안경과 안경집 (출처: 초당안경박물관)

순한 모양이었으나 점차 미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예술품의 경지에 이르는 섬세한 조각과 그림, 색채가 가미되어 장식품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오복을 기원하는 장수와 부귀공명, 경전의 명구와 유명시인의 시구를 인용하는 문자나 그림문자, 화조, 초충, 십장생, 유불선 사상에 입각한 신선을 새기거나 수를 놓아 시각적 미감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상상의 세계에 사는 봉황과 용을 그리거나 상징하는 문양을 사용하여 왕실을 나타냈고 중인들은 목재나 생선껍질을 말려 문양을 넣거나 테를 돌려 장식을 하는 등 휴대한 안경집에 따라 신분이나 재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이한 기능도 하였다.

안경집을 만드는 소재도 초기에는 안경을 보호한다는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견고한 나무 등을 주로 이용했으나 점차 금속, 어피류, 가죽 등을 도입하였다. 초기의 안경집은 휴대가 간편한 형태로 안경을 반으로 접어 넣을 수 있도록 비단 등으로 싸서 만들거나 바탕 자체를 고급나무, 유기, 금속

등으로 만들었다. 안경이 보편화되면서 안경집은 커지고 다채로운 모습을 띄게 되었다.³⁸⁾

조선시대 안경집 디자인의 특징적인 요소는 첫째, 보호의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이며, 둘째, 안경 본연의 형태에 우선한 디자인이며, 셋째, 제작의 용이성과 창작물의 다양성을 추구한 디자인이고, 넷째, 소재의 물성을 활용해 심미성을 추구한 디자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째, 보호 기능에 충실한 부분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나무나 금속 등 단단한 재질을 사용해 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부드럽고 가벼운 종이를 사용할 때도 단단하게 엮어놓은 지승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한지의 길진 성질을 이용하여 겹겹이 풀로 접착하여 경도를 다져서 사용하였다. 기타 자수나 천 안경집 등에도 속빠대는 나무나 한지안경집을 만들어 견고성을 더하고 그 외 벽에 종이나 천을 감싸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라도 속빠대 위에 배접형식으로 안경집<그림 41>를 제작함으로써 안경을 보호, 보관한다는 도구 본연의 목적성에 충실한 디자인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안경 형태를 우선으로 하는 디자인은 크게 갑의 형식과 통의 형식으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이는 안경의 외형과 보관 방식을 기초로 디자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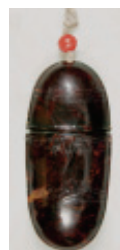
먼저, 갑의 형식을 띤 디자인은 부피를 최소화하여 휴대의 용이성을 한층 더 고려한 디자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림 42><그림 43><그림 44><그림 45>처럼 납작한 형태로 개폐 시에는 평평한 바닥 면에 놓고 여는 좌식형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상하 여닫이나 좌우 미닫이의 개폐방식을 취한 갑 형식의 안경집은 좌우로 미닫는 경우, 안경집 상단부에 커다란 못으로 고정하였으며, 상하로 여닫는 경우는 안경집의 상단부와 하단부 안쪽에 끈으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납작하고 얇은 안경집 상판의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고 상판의 유실을 방지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갑의 구조를 지닌 안경집의 외형디자인은 자연물을 모방한 형태 <그림 44>에서부터 기하학적인 형태 <그림 42> <그림 43>에 이르기까지 소재의 물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통형식의 안경집은 크게 원통형 <그림 46>과 편병형 <그림 47>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접이식이 아닌 일반 안경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다. 입식형의 개폐방식으로 무게중심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해 상단부를 하단부보다 짧게 디자인함으로써 개폐 시의 안정성과 미적인 비례감각을 동시에 발현하였다. 각각의 디자인은 초창기에는 나무 안경집을 사용하여 원통형식을 취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소재로 디자인 변형을 꾀하였으며, 원통형과 타원형의 편병형 안경집으로 디자인이 다양해졌다.

셋째, 제작의 용이성과 창작물의 다양성 추구는 안경집의 변천사와도 관계가 있는데, 초기 안경집의 형태는 단단한 나무의 속을 파서 보관하는 용구로 활용하였지만, 점차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나무 조각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생

활용품에 이용하던 전통공예방식(나전칠기공예, 화각공예, 한지공예, 가죽공예, 자수공예, 금속공예)을 안경집에도 적용하여 기능성은 물론 제작의 용이성을 고려한 다양한 창작물을 탄생시켰다.

넷째, 소재의 물성을 활용해 심미성을 추구한 디자인은 안경에 대한 인식과도 연관되어지는데, 과거에는 안경착용을 예의에 벗어나는 일로 여겼으므로, 안경집 역시 보관과 휴대라는 목적성에 충실한 디자인이었으나 이후, 안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안경집도 자연스럽게 다양화, 장식화 되었다. 실제로 안경 사용초기와 달리 개폐기에는 안경을 쓰는 것이 특권층을 나타내는 신분표현 방식이 되었으며, 멋내기 도구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안경과 더불어 안경집의 디자인도 화려하고, 다양하게 발전했으며, 안경집을 소형화하여 장신구로도 활용하는 <그림 48>의 안경집형 노리개도 출현하게 되었다.



<그림 46> 원통형나무안경집 <그림 47> 산수문을 대추나무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출처: 안경박물관)



<그림 48> 안경집 노리개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106)

<표 2> 조선시대의 안경집

항 목	안경집의 특징
나무안경집	피나무, 은행나무, 오동나무 등 견고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 문양을 새겨 활용하기도 하였음
대모안경집	거북의 등껍질을 불에 녹여 쇠틀에 찍어내어 제작한 안경집
우각안경집	소뿔로 제작된 골갑 안경집의 대표적인 예로 인기가 높았음
자개안경집	얇게 간 조개껍질을 원하는 형태로 잘라 안경집 표면에 감입하여 제작
화각안경집	우각의 박편 판에 십장생이나 민화적 소재를 백·적·황·녹으로 채색 활용
어피안경집	상어 껍질의 비늘을 갈아내고 염색하여 활용, 작은 물방울 무늬가 특징
금속안경집	은, 백동, 황동, 적동, 주석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튼튼하고 귀했음
종이안경집	한지의 질긴 성질을 활용하여 여러 번 겹치거나, 꼬거나(지송), 뺨대로 이용
자수안경집	십장생, 연꽃, 수복자문과 같은 길상문양을 안경집에 자수하여 사용
천 안경집	안경집 속 틀에 비단과 같은 천으로 안경집 외부를 감싸는 방식으로 사용
가죽안경집	가볍고 질긴 특성을 활용한 안경집으로 문양을 넣기도 함

2) 조선시대 안경집의 소재

조선시대 안경집의 소재는 나무, 대모와 우각, 자개, 화각, 어피, 금속, 한지와 지송, 자수, 천, 가죽 등이 있다.

먼저, 유물로 전해 내려오는 안경집은 다양한 재질과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기능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견고한 나무가 많이 쓰였다. 주로 피나무, 은행나무, 오동나무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림 49>와 같이 속을 파내고 다듬어서 옷칠 또는 기름칠한 것이 대부분이다.³⁹⁾ 또한 대추나무에는 <그림 50>과 같이 사군자, 십장생, 만자문, 연꽃, 꽃무늬, 신선도, 화조, 포도 등 온갖 문양을 새겨졌으며, 대나무 안경집은 통나무를 파기 힘들어 대나무의 껍질을 벗겨 엮은 후 문양을 낸 <그림 51> 채상 안경집도 제작되었다.

둘째, 대모와 우각 안경집은 <그림 52>와 같다. 안경테로 즐겨 사용된 대모는 안경집 소재로 인기가 높았으며, 대모 안경집에는 사군자가 양각된 것도 있었다. 대모로 된 안경집은 불에 달궈 물렁해지면 쇠로 된 틀에 찍어 내어 옆면을 부레풀로 붙여 제작했다.⁴⁰⁾ 또한 우각은 안경테로 많이 사용하던 재료로서 대모와 더불어 골갑 안경집의 주된 재료로 활용되었다.

셋째, 자개 안경집은 나전칠기 안경집으로도 불리는데, 나전이라는 말은 한국·중국·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한자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자개’라는 고유어를 써 왔다. 나전칠기는 칠공예 장식기법의 하나로서 얇게 간 조개껍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올려내어 기물의 표면에 감입시켜 꾸미는 것을 통칭한다.⁴¹⁾ 자개장, 자개상과 같은 생활가구에 많이 쓰였으며, 자개 안경집은 십장생, 화조, 수복(壽福)자의 문양을 새겨 <그림 53><그림 54>와 같이 사용하였고, 호사가들 사이에서 애용되었다.⁴²⁾

넷째, 화각 안경집 <그림 55><그림 56>은 우각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판에⁴³⁾ 그림이 있는 안경집으로 화각기법은 소뿔 측면을 상하로 켜서 불 위에서 퍼가며 각판을 얻어내고, 그 표면을 깎아내어 종잇장처럼 얇게 만든 후, 안쪽 판면에 석채를 부레풀로 그림을 그려 제작하는 기법으로 백·적·황·녹의 짙은 색이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각 판을 통해 황변되어 차츰 색이 부드럽고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로 십장생·운룡·봉황·모란·물고기·까치와 호랑이 등 민화적 소재가 주류를 이루며 안경집과 함께 함·반진고리·자·실패·베갯모·부채·머릿장 등 생활소품에



<그림 49> 나무안경집
(출처: 원주시립박물관)



<그림 50> 사군자안경집(출처: 고려대학교박물관)



<그림 51> 대나무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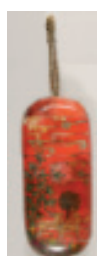
<그림 52> 대모, 우각안경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103)



<그림 53> 복자문자개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그림 54> 화조문 자개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그림 55> 화각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그림 56> 화각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활용되었다.⁴⁴⁾

다섯째, 어피 안경집은 물고기 껍질로 제작된 것으로 정확히는 상어의 껍질(교어피) <그림 57>로 제작된다. 어피 안경집은 숫돌로 비늘을 갈아 내고 여기에 흰색, 붉은색, 푸른색의 물감을 칠해 만든다. 우리나라에는 흰색 어피안경 <그림 58>이 많은데 작은 물방울무늬가 특징이며, 주로 속을 종이로 제작하고 통통한 모양이 특징이다. 어피 안경집은 멋과 실용성을 위하여 은이나 백동, 황동, 적동, 주석 등으로 띠를 둘러 <그림 57>처럼 장식하기도 하였다.⁴⁵⁾ 상어 껍질은 그 자체로는 매우 거칠지만 가공을 통해 매끄럽게 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매끈한 표면에 작은 물방울⁴⁶⁾은 어피의 자연스러우면서도 독특한 문양으로 인기가 있었다.

여섯째, 금속 안경집 <그림 59>는 튼튼한 반면 무거워서 매우 귀한 편이었다. 은, 백동, 황동(신주), 적동(구리), 주석 등으로 만든 안경집이 있으며, 무쇠에 은입사한 것은 매우 귀하게 여겨지

도 했다.⁴⁷⁾

일곱째, 안경이 보편화되면서 종이로 만들어진 안경집 <그림 60>이 오히려 나무로 만든 것보다 많았는데, 종이로 제작된 한지 안경집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독특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닥나무 한지는 질기고 수명이 길어 안경집을 만드는데 안성맞춤이었다. 종이를 여러 겹 겹쳐 바른 뒤 옷칠을 하거나 종이를 가늘게 잘라 꼬아 엮은 지승(노끈) 안경집 <그림 61>은 질겨서 오래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다.⁴⁸⁾ 한지의 견고한 특성은 한지를 몇 겹으로 바른 갑옷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옷칠을 입힌 몇 겹의 한지로 만든 갑옷은 화살도 뚫지 못했다고 한다.⁴⁹⁾ 이처럼 견고한 한지의 성질을 이용한 종이 안경집은 천 안경집의 속빠대로도 활용되었으며, 명주, 모시, 삼베 등으로 감싼 뒤 옷을 칠해 사용했다.⁵⁰⁾

여덟째, 자수 안경집은 원단에 길상문양을 넣어 수를 놓고 이를 활용한 것으로, 자수는 회화적인 재현 그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안이



<그림 57> 교어피안경집
(출처: 온양민속박물관)



<그림 58> 어피 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그림 59> 금속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그림 60> 종이 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그림 61> 지승 안경집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73)



<그림 62> 자수안경집
(출처: 온양민속박물관)



<그림 63> 상궁 윤백영의 안경집 자수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94)



<그림 64> 자수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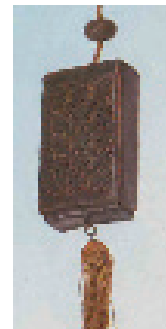
<그림 65> 천 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그림 66> 천 안경집
(출처: 안경박물관)



<그림 67> 가죽안경집
(출처: 초당안경박물관)



<그림 68> 가죽안경집
(출처: 『옛 안경과 안경집』, 2001, p.101)

내포하는 상징을 담고자 하였다. 불로장생과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과 다산과 부부금실을 의미하는 연꽃⁵¹⁾문양, 수복자문 <그림 62><그림 64> 등이 많이 쓰였다. <그림 63>은 자수 안경집의 대표적인 예로 순종 때 상궁 윤백영의 미완성 작품이다.

궁중 문화가 발달했던 조선시대에는 궁수와 민수가 분화되어 발전하였는데, 궁수는 수방이나 관구조직을 통해 전문적으로 제작되었다. 궁 안에는 따로 도화서원, 금·은사, 염색장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수방 궁녀 또한 따로 뽑아 왕실의 복식과 용품을 만들게 하였다.⁵²⁾ 조선 말기에는 수농

는 상공을 두어 안경집을 만들게 했으며, 산호 구슬이나 유리구슬을 실에 꿰어 수놓기도 했는데, 안경집의 재질과 문양은 계급에 따라 차이가 났고, 봉황이나 용 문양은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⁵³⁾

아홉째, 천 안경집 <그림 65><그림 66>은 문양과 색상이 아름다운 천을 종이와 같은 안경 틀 위에 싸서 제작한 안경집이다. 비단 외에도 모시, 삼베 등에 옷칠로 마감한 안경집⁵⁴⁾이 제작되었다.

열째, 가죽으로 제작된 안경집 <그림 67><그림 68>은 가볍고 질긴 것이 특징이며 드물게 나타난다.⁵⁵⁾

IV. 결론

최근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융복합에 관한 시각은 안경 산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4월 개최된 제13회 대구국제안경전시회(DIOPS)는 안경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융복합 국제 안경전시회로 글로벌 안경도시로 도약하고자하는 지역산업발전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안경 산업과 문화 그리고 디자인을 결합함으로써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은 창조경제 시대에 고무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안경테의 90%를 생산하고 있는 대구지역 안경업계의 고민은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져 있는 문제와 다르지 않으며, 저가제품과 명품사이에서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극복의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한국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안경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문화와 디자인을 산업과 연결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채치 있게 표현하고 안경브랜드의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안경과 안경집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면에서 안경 디자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과거 우리나라 안경과 안경집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에 관한 특징적인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리의 안경문화는 사용초기,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억제하려는 욕구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보수적인 바탕위에서 안경의 기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안경착用に 대하여는 거부감을 느끼는 유교적인 문화의 인식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안경은 기능적인 발전과 다양한 소재의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대외적인 교류를 통해 더욱 더 다양한 안경이 유입되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후, 오랜 기간을 거쳐 안경 착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안경이 멋내기의 장신구로 활용되며 특정계층의 신분과 부를 표시하는 코드로도 활용되는 생활문화와 사고의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실제로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은 많은 유물을 통해 그 실증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청장관전, 지봉유설, 정조실록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안경에 관한 인식과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문화적 양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은 유교적인 바탕위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점점 더 다양화, 기능화, 장식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안경 디자인에 대한 특징적인 요소는 첫째, 신체적 한계의 보완 및 보호에 목적을 둔 의료 중심의 디자인이며, 둘째, 안정성과 착용성을 위하여 다양한 착장방식을 탐구한 디자인이고, 셋째, 소재의 물성과 외형에 주목한 디자인이며, 넷째, 의료 도구에서 장식 도구로 활용도를 확장시킨 디자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안경에 대한 인식의 변

화로 노출빈도가 높아지면서 편이성과 안정성을 기초로 기능적인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활동성과 지속성을 증가시켰다. 더불어 안경 착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장식적인 효과가 증폭되면서 제작 기술과 예술성이 연계되어 다양한 디자인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안경집 디자인은 보호의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안경 형태를 우선으로 한 디자인, 제작의 용이성과 창작물의 다양성을 추구한 디자인, 소재의 물성을 활용한 심미적인 디자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과거, 안경수출부문의 정상을 달리던 모습을 희구하며, 글로벌한 시장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길은 기술을 기반으로 고감성의 패션문화와 접목하고, 독창적인 안경브랜드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길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안경디자인 산업에 발전과 한류문화상품에 대한 다각적인 개발요구로써 본 연구가 우리 안경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Corson, Richard. 안경의 문화사, 김하정 옮김 (2013). 서울: 에디터, p.12.
- 2) 위키백과사전(검색어: 독서 돌), 자료검색일 2014. 8. 16. <http://en.wikipedia.org>
- 3) 금복현 (2001). 옛 안경과 안경집, 서울: 대원사, p.14.
- 4) 안경발명 근거: 1306년 2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피렌체 교회 수도사 프라 조르다노 디 리발트의 설교 내용
- 5) Corson, Richard. 앞의 책, p.12.
- 6) 초당안경박물관, 자료검색일 2014. 8. 15. www.chodan.ac.kr
- 7) Corson, Richard. 앞의 책, p.33.
- 8) 위의 책, p.46.
- 9) 위의 책, p.53.
- 10) 초당안경박물관, 자료검색일 2014. 8. 15. www.chodan.ac.kr
- 11) Corson, Richard. 앞의 책, pp.81-122.
- 12) 위의 책, pp.139-195.
- 13) 콘택트렌즈의 발명: 최초 발명가는 스위스의 의사인 피크(A. E Fick)로 1887년, 유리를 깎아 안구 전체를 씌우는 렌즈를 개발하였으나 파손우려로 대중화 실패. 1939년 윌리엄 파인볼름이라는 미국인이 플라스틱 소재의 하드렌즈를 발명.
- 14) 초당안경박물관, 자료검색일 2014. 8. 15. www.chodan.ac.kr
- 15) Dioptrie: 눈의 굴절 이상 정도를 표시하는 표준 단위. Dptr 또는 D로 표시. 안경의 경우 1디옵터는 초점 거리가 1미터인 안경의 도수.
- 16) 비점수차: 렌즈의 주축에서 떨어져 있는 물체의 상이 고리 모양이나 방사상으로 흐릿해지는 현상으로 카메라 렌즈 등을 만들 때에는 이를 보정해 줌.
- 17) 두산 백과사전(검색어: 렌즈), 자료검색일 2014. 8. 15.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09581
- 18) 강현식 (2002). 안경학개론, 서울: 신광출판사, p.414.
- 19) 금복현. 앞의 책, pp.16-28.
- 20) 애체 : 안경을 칭하는 중국어 표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안경을 지칭하는 어휘)
- 21) 청장관전: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1741-93) 저술의 시문집.
“선조가 하사한 물건을 보았더니, 크기가 돈짜만 한 것 두 개가 있었는데, 흡사 운모와 같고 금으로 테를 둘렀으며, 자루가 달렸다. 오므리면 하나가 되고 퍼면 둘이 되는데, 노인이 두 눈에 걸면 글자가 배가 크게 보인다.”는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안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저서를 통해 안경의 보편적 사용 시기를 추측할 수 있음.
- 22) 정조실록: 51권(23년 5월 5일 임술)
“몇 년 전부터 점점 눈이 어두워지더니 올봄 이후로는 더욱 심하여 글자의 모양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 정사의 의미에 대해 낙점을 하는 것도 눈을 매우 피로하게 하는 일인데, 안경을 끼고 조정에 나가면 보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니, 6월에 있을 몸소 하는 정사도 시행하기가 어렵겠다”고 기록하고 있음. 또한 정조는 “안경은 200년 전에 처음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여 ‘지봉유설’의 기록을 뒷받침함.
- 23) 지봉유설: 조선 중기, 이수광(1563~1628) 이 편찬한 백과전서
“안경은 노인이 책을 볼 때 쓰는 것으로 작은 글자를 크게 보이게 한다. 소식에 의하면 명나라 장수 심유경과 왜의 승려 현소가 모두 노인용 안경을 쓰고 가늘고 작은 글씨를 읽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하던 것이다. 안경은 해방(조개의 이름) 껍질로 만든다고 한다.”라고 함.
- 24) 금복현. 앞의 책, p.23.
- 25) 한빛안경박물관, 자료검색일 2014. 8. 15. www.안경박물관.kr
- 26) 금복현. 앞의 책, pp.16-30.

- 27) 한빛안경박물관, 자료검색일 2014. 8. 15. www.안경박물관.kr
- 28) 금복현. 앞의 책, pp.20-47.
- 29) 한빛안경박물관, 자료검색일 2014. 8. 15. www.안경박물관.kr
- 30) 김상일 (2008. 3. 5). 2008 대구국제광학전 ‘고안경박물관’ 운영, 대구시민일보, 자료검색일 2014. 8. 10.
- 31) 금복현. 앞의 책, p.60.
- 32) 위의 책, p.62.
- 33) 위의 책, pp.50-51.
- 34) 위의 책, pp.16-23.
- 35) 위의 책, pp.31-58.
- 36) 위의 책, pp.31-89.
- 37) 허동화 (200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 서울: 현암사, p.113.
- 38) 한빛안경박물관, 자료검색일 2014. 8. 15. www.안경박물관.kr
- 39) 금복현. 앞의 책, p.90.
- 40) 위의 책, pp.100-101.
- 41) 한국민족문화대백과(검색어: 나전칠기), 자료검색일 2014. 8. 1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 XE0011448>
- 42) 금복현. 앞의 책, p.94.
- 43)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자료검색일 2014. 10. 10. seongnam.grandculture.net
- 44) 박영규 (2005). 한국미의 재발견-목칠공예, 고양: 솔출판사, p.48.
- 45) 금복현. 앞의 책, pp.100-101.
- 46) [재미있는 눈과 안경이야기]조선시대 안경집은 □□ □ 이었다 (2009, 4. 24). 영남일보, 자료검색일 2014. 8. 10.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090424.010400830320001>
- 47) 금복현. 앞의 책, p.102.
- 48) 위의 책, p.102.
- 49) 강지영. 손영미 (2008). 한지소재를 이용한 드레스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8(3), p.46.
- 50) [재미있는 눈과 안경이야기]조선시대 안경집은 □□ □ 이었다 (2009, 4. 24). 영남일보, 자료검색일 2014. 8. 10.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090424.010400830320001>
- 51) 이명준, 최현숙 (2009). 한국 전통자수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9(1), p.81.
- 52) 위의 책, p.80
- 53) 정은자 (2011). 규방소품 제작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 54) [재미있는 눈과 안경이야기]조선시대 안경집은 □□ □ 이었다 (2009, 4. 24). 영남일보, 자료검색일 2014. 8. 10.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090424.010400830320001>
- 55) 금복현 앞의 책, p.101.

A Study on the Designs of Glasses and Glasses Cases in the Era of the Joseon Dynasty

Yun, Eul Yo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Fash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Nowadays, the glasses have been settled down, more than a medical instrument to supplement the physical defect or indisposition, as one of the necessities of life for well-being and furthermore as one of the indispensable small pieces for fashion in our life styles. This study is focussing on the designs of the glasses and the glasses cases in the era of Joseon Dynasty when the glasses were for the first time introduced in the country, and pursuing the current of the day when is taking a growing interest in 'Hallyu', it is deemed to be a good way for us to upgrade the value of 'Hallyu' brand by developing the trailblazing designs of the spectacles in which our traditional patterns are added and establishing the original forms of ourselv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the contemplation on the glasses and the glasses cases and also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s and designs of the glasses and the glasses cases in the era of Joseon Dynas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base of documents, including professionalized books on the glasses, embroidery, and traditional technologies both domestic and abroad. And the periodicals, the data of many museums, and online data were consulted in this research, as well. The glasses and glasses cases in Joseon Dynasty had been diversified, functionalized, and become decorative according as the global trend had changed, even though they had still been based on Confucianism. This paper found that in the beginning the glasses design was mainly made from a medical perspective and was plann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wearing modes, but as its function changed from a medical instrument to a decorative one, change of the recognition, convenience, stability and decorativeness were taken into account in the design. The glasses case based on protective function, preferential shapes of the glasses, easiness of manufacturing, creativity, and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Key words: Glasses, glasses case, lifestyle